

평택신문

제 16-379호 Since 2001 www.iptnews.kr



2017년 12월 18일~12월 31일

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50(이충동 7층) / TEL: 031-663-1100 / FAX: 668-4800

6 초밥&를 전문점 '스시 yong'
섬김의 갑질(?)로 '초밥 전성시대' 예고한다

12 소리사위 예술단 백은희 감독
전통을 입혀 새로운 미래를 출력한다

23 "한전, 전주·통신주 이설비용 부가부당"
시, 관련기준 개선 등 8억여원 '환수 소송중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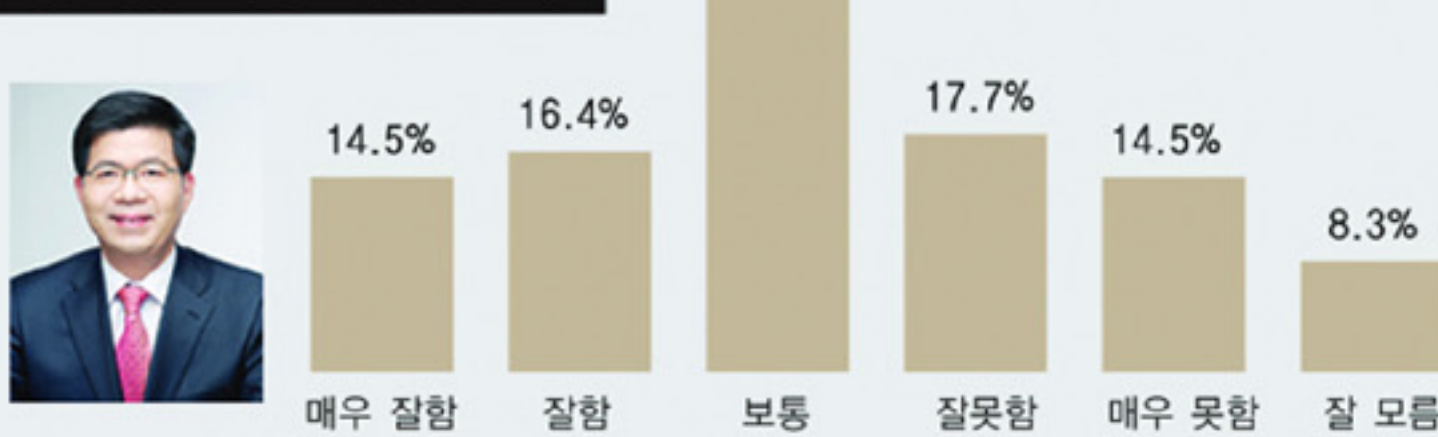
평택시정 운영 평가 · 2018 지방선거 '여론조사'

공재광 시장 '호평' ... 선거는 "정책·공약 고려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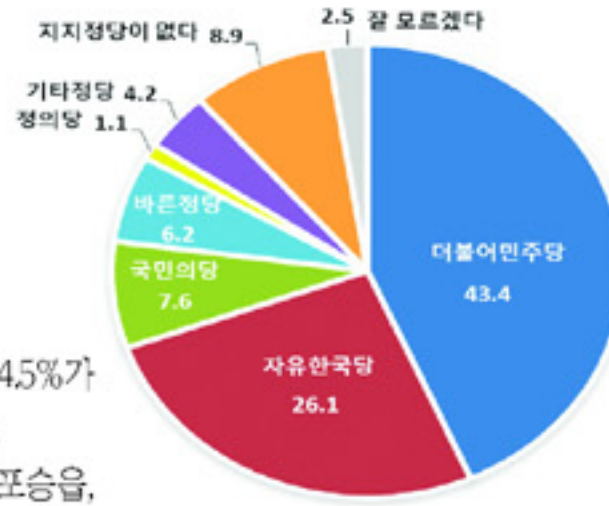
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 적합도



공재광 시장 시정 평가



공재광 시장 시정운영 긍정적 평가 59.5%
보통 28.6%, 잘함 16.4%, 매우 잘함 14.5%
더민주당(43.4%) · 자유한국당(26.1%)
국민의당(7.6%) · 바른정당(6.2%) 순



평택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평택지역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2018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.

이번 여론조사는 현 시장인 △공재광 시장의 시정운영 평가 △정당별 지지도 △더불어민주당 내 후보적합도 △후보자 선택기준 등에 대해 물었으며 후보적합도 조사에 선정된 후보군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인품에서 유력한 예비후보로 거론 중인 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.

평택신문은 유권자 표심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지방선거 전까지 이번 조사를 포함해 총 4회에 걸쳐 여론조사 실시할 예정이다.

이번 조사 결과 공재광 시장에 대한 시정 운영 평가는 보통을 포함한 긍정적 평가가 59.5%(보통 28.6%, 잘함 16.4%, 매우 잘함 14.5%)로 나

타났으며 17.7%가 잘못함, 14.5%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.

지역별로는 팽성·안중·포승읍, 고덕·오성·청북·현덕면이 속한 제3선거구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37.1%로 가장 높았고 부정적인 평가는 신평·원평·비전1·비전2동이 속한 4선거구에서 40.2%로 높게 조사됐다.

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46.3%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고 30대의 45.1%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.

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3.4%, 자유한국당 26.1%로 나타나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17.3% 앞섰으며, 국민의당 7.6%, 바른정당 6.2%, 정의당 1.1% 순이었다.

지지정당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.4%였다.

지역별로 더불어민주당은 중앙·서정·송탄·통북·세교동이 속한

제2선거구에서 과반이 넘는 53.2%가 지지했고 자유한국당은 신평·원평·비전1·비전2동이 속한 4선거구가 30.6%로 가장 높았다.

연령별로 더불어민주당은 20대와 40대가 각각 54.4%, 56.2%로 두터운 지지층을 형성했고 자유한국당은 60대 이상이 51.8%로 두드러졌다.

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장선 27.9%, 김선기 18.7%, 임승근 7.1%, 오명근 6.3% 순으로 조사됐다. 적합한 인물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대답은 31.5%에 달해 향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.

지역별로 정장선 전 국회의원은 신평·원평·비전1·2동이 속한 4선거

구에서 36.1%로, 김선기 전 평택시장은 중앙·서정·송탄·통북·세교동이 속한 제2선거구에서 26.1%로 높게 나타났으며, 임승근 더불어민주당 갑지역위원장은 8.4%가 지지한 2선거구가, 오명근 시의원은 8.3%가 지지한 4선거구가 가장 높았다.

연령대별로 정장선 전 국회의원은 40·50대가 두터운 지지층을 형성했으며 김선기 전 평택시장은 40대의 지지세가 강했다.

후보자 선택기준을 묻는 질문에서는 '정책 및 공약'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34%로 가장 많았고, '도덕성 및 청렴성' 20.9%, '소속 정당' 17.4%, '인물' 14.3%, '정치적 경험' 6.1% 순이었다. 연령별로는 '소속정당'의 경우 30대가, '정책 및 공약'과 '도덕성 및 청렴성'은 20대가, '인물'은 60대 이상이, '정치적 경험'은 50대가 높은 가치로 꼽았다.

특히 후보자 선택기준 조사에서도 드러진 특징으로는 그동안 선거에 큰 관심이 없는 연령층으로 여겨졌던 20

대가 '정책 및 공약' '도덕성 및 청렴성'에 후보선정의 비중을 두었다는 점이다.

설문조사 표본은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무작위 추출 가상번호와 인구비례할당 무작위 추출에 의한 유선전화 RDD로했으며 2017년 11월 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라 성별, 연령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. 조사의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서 ±3.4%p, 응답률은 1.6%다.

강주형 기자
iou8686@naver.com

△조사주관 : 평택신문 △조사기관 : 모노리서치 △조사기간 : 2017년 12월 11~13일 △조사대상 : 평택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△표본 수 : 800명 △조사방법 : 유·무선전화 ARS 전화조사 △가중치보정 : 성별·연령·지역별 가중값(2017년 11월 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), 셀가중 △표본오차 : 95% 신뢰수준 ±3.4%p △응답률 : 1.6% △표본 프레임 : 유선-RDD 무작위 추출(70%) / 무선-휴대전화 가상번호(30%)

